

농업인력육성교육의 개선방향 및 과제

- 농업인력육성 교육을 중심으로 -

황장수* · 장경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부장)

Improving Direction and Object of the Education for Advanced Farmers

Chang-Soo Hwang* · Kyeng-Ho Chang**

*Direct of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Karak 71, Songpa, Seoul, Korea

**Official Chief of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Karak 71, Songpa, Seoul, Korea

적 요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유능한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전문기술과 경영에 대한 교육, 훈련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추진현황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업환경 변화와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용하고, 개별경영인의 건전한 영농실계와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는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수정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에서 한농연 자체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기존 한농연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효과에 대한 농업경영인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농연 자체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81년부터 실시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97년말 현재 97,169명이 지정되었으며 지원금액도 1,361,630백만원에 이르러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영농경험이 적고 영농기반이 취약하며 지원시책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출발 등 무한경쟁의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았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농업인구는 양적으로 감소하고 질적으로 저하하여 농업발전의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는 현실여건하에 선 이들 농어민 후계자들은 그들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면서 농어촌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유능한 경영자, 기술자, 관리자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자와 국가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농기술자, 유능한 경영관리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실 농업, 농촌문

제의 해결자로 그리고 장래 한국농업을 주도할 잠재력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서 본연구는 농어민 후계자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한 유능한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혁신적이고 기술 수용적인 유능한 기술자, 경영자,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2. 연구의 목적

농업인구의 계속적인 이농과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현상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 97,169명의 농어민 후계자는 탈락자의 증가, 목적외로 이탈 등의 경우도 있으나, 점차 그들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크다.

한국농업도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 지방화에 따른 지방수요의 증대, 개별농가의 규모화와 차별화, 소비자 수요의 충족등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개별 농업경영 주체의 육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경영자는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유능한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전문 기술과 경영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그동안 추진된 농어민 후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추진현황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업환경변화와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응하고 그리고 개별경영자들이 건전한 영농설계와 경영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유능한 농업경영인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3. 연구내용과 범위

농업경영인 교육훈련사업(정부, 한국농업경영인 중

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도단위, 한국농업경영인 시·군단위,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유관기관의 농업교육훈련 등)의 현황과 농업경영인 교육훈련과 유관기관의 역할 등을 알아보고, 농업경영인 교육에 참가한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대상인 농업경영인들에게 적합하고 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관련통계자료, 문헌조사, 국내외 유관기관(농림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농촌진흥청, 농협)의 자료를 통한 서술적 방법과 농업경영인의 교육훈련 실태조사(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기존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내용과 체계조사)를 통하여 교육훈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농업경영인 교육훈련사업 현황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교육훈련

가. 일반현황 분석

1) 교육운영체계

간부교육이라 할 수 있는 중앙임원교육과 시·군 회장교육이 있으며, 실무자를 위한 직무교육인 사무국장교육, 품목분과교육인 품목별전문화교육으로 구분된다. 품목별전문화교육은 품목위원회교육, 화훼, 한우, 낙농, 시설채소, 배, 쌀, 양돈, 사과, 포도, 버섯, 감귤교육으로 세분화된다.

교육내용은 회장 및 부회장(4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지 않으며, 교육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내용보다는 중앙임원만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내용이 많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 담당부서가 없으며, 실무자의 업무 과부하로 교육과정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각각의 교육에 대한 목적은 있으나 세부계획에 따른 목표가 없으며, 이에 따라 평가기준 자체도 미흡한 실정이다(현재까지 객관적인 교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교육예산

각 교육에 대한 예산의 평균집행율은 43.1% 수준으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1 참조). 예산집행율 자체도 미흡한 수준이지만 예산지

출 형태도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집행내용은 미진한 수준으로 교육과정개발비, 교재비, 강사비 등 순수하게 교육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12.6%에 불과하다(표 2 참조).

교육예산에서 교육참가자의 자부담 비율은 평균적으로 23.4%인데, 시·군회장 및 사무국장교육의 경우에는 1인당 회비가 15,000원이고, 자부담 비율은 각각 15%, 20%이며,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에는 1인당 회비는 10,000원이고, 자부담 비율은 30%으로 품목별 전문화교육의 경우 예산집행율은 적으나(18.6%), 자부담 비율은 오히려 평균을 웃돌고 있다(표 3 참조).

표 1. 각교육별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율(%)
시·군회장교육	25,000,000	17,996,050	72.0
사무국장교육	15,000,000	8,164,725	54.4
중앙임직원교육	3,000,000	2,186,348	72.9
각품목별 전문화교육	40,000,000	7,413,880	18.6
합 계	83,000,000	35,761,003	43.1

자료: '97년 한농연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표 2. 시·군회장교육비 구성현황

구 분	집행액(원)	사용내역	구성액(%)
시·군회장교육	17,996,050	선물(다리미)	8,052,000(44.7)
		기념품(츄리닝)	5,200,000(28.9)
		식대, 세탁비외	2,488,500(13.8)
		토론비	1,500,000(8.3)
		자료집, 수수료증 외	755,550(4.3)
합 계	17,996,050		17,996,050(100)

자료: '97년 한농연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표 3. 각교육별 자부담비율 현황

구 분	예산액(원)	자부담(원)	자부담비율(%)
시·군회장교육	25,000,000	3,750,000	15
사무국장교육	15,000,000	3,000,000	20
각품목별 전문화교육	40,000,000	12,000,000	30
합 계	80,000,000	18,750,000	23.4

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97년)

3) 교육참석현황

평균 교육참석율은 57.9%이고, 시·군회장교육의 경우 51.6% 수준으로, 교육참석율은 교육시기, 교육내용, 개인사정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참석률이 50% 수준이라는 것은 교육과정개발자체의 문제점을 시사해 준다.

4) 교육방법

교육방법으로는 내부강사 및 전문가 초청강의, 토론 및 분임토의, 현장견학, 레크레이션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간부교육 및 사무국장교육에서는 강의 비중이 높았으며(각각 57.1%, 85.5%), 품목별전문화교육은 강의와 견학, 사례발표의 교육방법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표 5 참조). 시·군회장교육 및 사무국장교육은 내부강사비중이 높았으며, 품목별전문화교육은 전문강사비중이 높았다. 사례적으로 볼 때 가장 잘된 사과분과교육의 경우 사과재배농가의 농민이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교육참여자의 높은 교육열의를 이끌었는데, 이를 볼 때 강사진의 구성은 현장경력이 있고, 강의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내용

한농연의 설립취지와 부합한 정책위주의 교육내용이 많았는데,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 생산기술 측면의 정보제공용 교육이 많았고 사무국장교육의 경우 실무부분과 연계된 전문화교육은 없었으며, 정책과 사업설명 일반도의 교육내용이었고 시·군회장교육의 경우 리더쉽개발과 경영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각각 35.1%,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강의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교육내용보다는 정책부분과 맞춰진 공감대 형성이 주목적이었다.

나. 각교육별 현황

1) 간부교육

중앙임원, 도연합회 임원, 시·군회연합회장 2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특성상 연 1회 실시하고, 1박2일 코스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이수에 대한 의무강화 및 교육체계정비가 필요하다.

2) 사무국장교육

도연합회 사무처장 및 사무요원, 시군연합회 사무

표 4. 각교육별 참석현황

구 분	예상인원(명)	참석인원(명)	참석율(%)
시·군회장교육	250	129	51.6
사무국장교육	200	127	63.5
품목별 전문화교육	1,200	700	58.3
합 계	1,650	956	57.9(평균)

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97년)

표 5. 각교육별 교육방법

구 분	토론		강의		견학		사례발표		합계(분)
	시간(분)	비율(%)	시간(분)	비율(%)	시간(분)	비율(%)	시간(분)	비율(%)	
시·군회장교육	90	12.9	400	57.1	60	8.6	0	0	700
사무국장교육	100	14.5	590	85.5	0	0	0	0	690
특작분과교육	0	0	180	60	60	20	60	20	300

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97년)

국(차)장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특성상 연 1회 실시하고, 1박2일 코스로 설계되었는데, 조직 실무자의 능력 제고 및 조직원과의 유대강화 방안 강구를 위한 분임토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3) 품목별 전문화 교육

품목위원회 분과장 및 각품목별 회원 1,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 및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도단 위 품목위원회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배교육의 경우 인력동원 실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은 조직내의 선도농가를 방문해 선진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 등 현장력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례별로 보면 실시한 교육 중 사과교육과 버섯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졌는데, 사과교육의 경우 독농가를 강사로 섭외해 강의한 결과 현장력 있는 강의를 이룰 수 있었고, 교육수강자의 교육태도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버섯교육의 경우 고소득 작물에 대한 교육수강자의 교육 열의를 반영한 결과였다.

다. 발전방향

1) 교육운영체계

전문부서 및 전문가를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교수자, 피교육자대표, 해당 직무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결성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프로그램마케팅 등의 방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교육수요조사 방법은 교육요구분석, 직무분석, 직업군분석, 기능분석방법 등 다양한 형태 중 실현가능한 방법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타분야의 경우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프로그램개발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김진화 참조).

교육목표를 반드시 기술해 교육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목표 서술은 반드시 도달점까지 명시해야 한다. 교육후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차기 교

육프로그램 계획시 평가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절성이 강조되는 농업교육의 특성상 교육시기 선정시 교육대상자들의 제특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래머의 신념과 가치가 반영되기 마련이지만 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시대적 흐름의 반영비율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업경영인의 자질함양보다는 경영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전문교육(경영계획 분석, 유통·마케팅 부분)이 필요하며, 생산자조직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회원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교육방법

사과교육의 예처럼 품목별 선도농가 중에서 강의 능력이 있는 강사를 발굴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가 자가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의내용은 녹음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내용에 맞는 교육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관계기관 담당자를 섭외해 토론회에 적극 동참시키고, 토론내용을 문서화해 공식력있는 토론으로 정착화해야 한다.

2. 한국농업경영인 도단위 교육훈련

가. 일반현황 분석

1) 교육운영체계

간부교육이라 할 수 있는 시·군회장 및 읍·면회장교육이 있으며, 실무자를 위한 직무교육인 사무요원교육, 품목분과교육인 품목별전문화교육, 신규농업경영인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예산은 도연합회 자체 보조와 행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실무진(직원 2명)내에서 전체 교육일정 계획이 선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실무진의 전문성 결여와 인원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어렵다. 또한 교육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있다.

교육목적과 목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명확한 교육목표 설정은 교육목표가 교육내용의 결정, 교육방법의 선택 및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 교육참석현황

간부교육의 경우 경상남도연합회의 참석율이 102.4%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연합회가 47.1%로 가장 낮았다. 사무요원교육의 경우 90.5%로 높은 참석율을 나타내고 있는데(표 6 참조) 이는 사무요원교육의 경우 강의식 교육보다는 등산이나 분임토의 등 흥미유발의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 47.5%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품목위원회 조차도 완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다.

3) 교육방법

간부교육의 경우 토론식 교육의 비중이 높으며,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는 강의와 견학, 사례발표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표 7 참조).

4) 교육내용

간부교육의 경우 리더쉽개발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많으며,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비중도 높

표 6. 각도별 교육현황

구분	직원수 (명)	간부교육		사무요원교육		품목별교육	
		교육인원	참석율(%)	교육인원	참석율(%)	교육인원	참석율(%)
경기	2	261	79.1	11	100	1,100	49.1
강원	2	100	72.5	-	-	-	-
충북	2	210	61.8	-	-	-	-
충남	3	216	72	26	100	-	-
전북	3	182	72.8	25	100	50	27.5
전남	2	180	47.1	-	-	-	-
경북	1	-	-	-	-	-	-
경남	3	512	102.4	24	68.6	-	-
제주	1	148	98.7	-	-	-	-
합계	19	1,809	77.4	86	90.5	1,150	47.5

자료: 각 연합회(97년)

표 7. 각 교육별 교육방법

구분	토론		강의		견학		사례발표		합계 (분)
	시간 (분)	비율 (%)	시간 (분)	비율 (%)	시간 (분)	비율 (%)	시간 (분)	비율 (%)	
간부교육	210	46.6	240	53.4	-	-	-	-	450
*사무요원교육	60	20	240	80	-	-	-	-	300
비육우분과교육	-	-	180	54.5	90	27.3	60	18.2	340

주) * 표시는 전라북도연합회의 경우임

자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97년)

은 편이다. 사무요원교육의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 증진을 위한 교육내용들로 편성되었으며,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 각분과별로 다양한 교육내용들로 편성되어 있다.

나. 각 교육별 현황

1) 간부교육

시·군회장 및 읍·면회장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 및 토론식으로 구성되며 (표 8)부터 (표 11)은 대표적 농민조직인 한농연경남연합회와 전남연합회의 간부교육을 비교한 것이다.

표 8. 교과구성 현황

구 분	경상남도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교육시간(분)	구성비율(%)	교육시간(분)	구성비율(%)
강 의	560	82.4	300	62.5
토 론	-	-	-	-
견 학	-	-	60	12.5
레크레이션	120	17.6	120	25
합 계	680	100	480	100

자료: 각 연합회(97년)

표 9. 강사진구성 현황

구 분	경상남도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교육시간(분)	구성비율(%)	교육시간(분)	구성비율(%)
내 부 강 사	250	44.6	200	66.7
외 부 강 사	310	55.4	100	33.3
합 계	560	100	300	100

자료: 각 연합회(97년)

표 10. 전라남도연합회 교육내용 현황

구 분	시 간	내 용	강 사
강 의	50분	전남농업의 발전방향	김영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50분	한농연 조직역할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	황창주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50분	21세기를 대비한 농업의 생존전략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
	50분	시·군연합회와 읍·면회 조직운영방법	양영수 한농연 전북연합회장
	50분	한농연 회의 및 행사진행요령	이동수 한농연 전남연합회 정책부회장
	50분	한농연 조직발전과 지도자 함양을 위한 과제	나상옥 한농연 전남연합회 수석부회장
견 학	60분	농촌진흥원내 시설	
레크레이션	120분	체육대회 및 각시군별 친목의 시간	

자료: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97년)

표 11. 경상남도연합회 교육내용

구분	시간	내용	강사
강의	50분	협동조합과 농업경영인의 역할	이응두 경남농협지역본부장
	90분	한국농업발전의 저해요소와 경쟁력 강화방안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연구원장
	90분	특강-경남농정 설명김혁규 경상남도 지사	
	50분	'97년 농업정세와 한농연의 역할	창주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50분	회의 및 행사진행방법	성이경 한농연 경남연합회 수석부회장
	50분	언론과 농업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장
	80분	해외 농업시장의 개척	양태선 농림부 과장
	50분	읍·면·동 조직운영방법	박종부 한농연 경남연합회장
	50분	만남의 시간	이천수 한농연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레크레이션	120분	친교의 시간	

자료: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97년)

2) 사무요원 교육

도연합회 직원 및 시·군 사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토론 및 강의체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시·군 사무간사들의 의욕감을 고취하였고, 상호간의 의견교류 및 이해도를 증진하였으며, 사무 관련 실무교육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 주었다.

3) 품목분과 교육

도연합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도는 경기도연합회 한 곳이며 전북연합회의 경우 농촌진흥원과 연계하여 실시했으나 교육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교육 목적은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 농업기술의 교류 및 전파, 품목분과 활성화에 있으며, 교육내용은 각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선도농가를 통한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다.

다. 발전방향

1) 교육운영체계

효율적인 프로그램 생산을 위해서는 참석율이 높은 우수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과정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교수자, 피교육자대표, 해당 직무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결성해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프로그램마케팅 등의 방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목표를 반드시 기술해 교육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교육목표 서술은 반드시 도달점까지 명시해 해야 한다.

교육후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차기 교육프로그램 계획시 평가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이 실시되기 전부터 계획되고 실시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평가과정은 평가의 세부목표설정, 평가내용과 방법의 결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처리와 분석 및 활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방법

교육대상자의 특성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참여식이나 게임식의 교육방식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이 선택됐을 때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 재개정 과정을 가져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가 자가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의내용은 녹음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교재외에 슬라이드와 같은 부교재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해야 한다.

III. 농업경영인 교육이수자 조사결과 분석

1. 일반현황

가. 설문지 조사개요

농업경영인 교육이수자에 대한 조사는 농업경영인 중에서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각 지역별 연합회소속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1997년 12월 20일부터 1998년 1월 1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강원도연합회, 충청연합회, 충남연합회, 전북연합회, 전남연합회, 경북연합회, 경남연합회, 제주연합회 등 9개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지방주재기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일반현황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280명(97.2%), 여자가 8명(2.8%)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총 288명중에서 40~49세가 168명(58.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30~39세가 36.8%로 나타났다. 즉 30, 40대가 174명(9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29세는 6명(2.1%), 50~59세는 8명(2.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총 288명 중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응답자가 100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이 74명(25.7%), 중졸이하가 68명(23.6%), 전문대졸이 18명(6.3%), 농수산계대졸이 14명(4.9%), 일반계대졸이 10명(3.5%)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자의 영농경력은 16~20년 경력자가 120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11~15년 경력자가 68명(23.6%), 21~25년 경력자가 42명(14.6%), 6~10년 경력자가 30명(10.4%), 5년이하 경력자가 14명(4.9%), 30년이상 경력자가 2명(0.7%)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요작목은 수도작이 116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과수 38명(13.2%), 채소와 특작이 각각 36명(12.5%), 한우 34명(11.8%), 화훼 14명(4.9%), 양돈 8명(2.8%) 등으로 나타났다.

2. 교과과정에 대한 반응

조사대상자가 참여했던 교육과정으로는 정부교육, 한농연중앙연합회교육, 한농연읍·면단위교육,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촌진흥청교육, 농협중앙회교육, 농수산물유통공사교육 등이 있었다. 복수응답으로 참여했던 교육은 조사 결과 총 922명의 답변중에서 농촌진흥청교육이 208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교육이 158명(17.1%), 농협중앙회교육이 132명(14.3%), 한농연도단위교육이 96명(10.5%), 한농연읍·면단위교육이 94명(10.2%), 한농연중앙연합회교육이 74명(8.0%), 농수산물유통공사교육이 40명(4.3%)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교육의 강의내용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유익하다고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62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 82명(28.5%), 대단히 유익함이 38명(13.2%),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6명(2.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200명인 69.4%가 유익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감안하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7.9%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익하다고 답변한 162명중에서 40~49세가 98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56명(34.6%), 20~29세와 50~59세가 각각 4명(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유익하다고 답변한 162명중에서 일반고졸이 52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이 44명(27.2%), 중졸이하가 42명(25.9%), 전문대졸이 10명(6.2%), 일반계대졸이 8명(4.9%), 농수산계대졸이 6명(3.7%)으로 나타났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유익하다고 답변한 162명중에서 수도작이 62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특작이 26명(16.0%), 한우가 20명(12.3%), 과수가 18명(11.1%), 채소가 16명(9.9%), 화훼가 10명(6.2%), 양돈이 4명(2.5%)으로 나타났다.

강의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92명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4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준비 미흡

이 32명(34.8%), 교육내용 부적합이 18명(19.6%), 강사 부적당과 기타가 각각 4명(4.3%)으로 나타났다.

강의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총 288명 중에서 156명(54.2%)이 보통이라고 답변하여 가장 많았다. 한편 철저하였음이 100명(34.7%), 철저하지 못함이 20명(6.9%), 매우 철저가 8명(2.8%)으로 나타나 총답변자 288명중 108명(37.5%)이 매우 철저하거나 철저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감안한다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1.7%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훈련 수강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의과목으로는 총 288명 중에서 품목별전문교육이 98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영자의식과 교양이 62명(21.5%), 농업경영이 46명(16.0%), 농업정책이 40명(13.9%), 현장실습이 24명(8.3%), 컴퓨터교육이 14명(4.9%)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은 교육훈련내용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욕구가 가장 높고, 경영자의식과 교양, 농업정책,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욕구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수강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의과목으로 품목별전문교육이라고 답변한 98명 중에서 40~49세가 58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8명(38.8%), 20~29세가 2명(2.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의과목으로 품목별전문교육이라고 답변한 98명 중에서 일반고졸이 34명(34.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농수산계졸이 22명(22.4%), 중졸이하가 22명(22.4%), 전문대졸이 10명(10.2%), 농수산계대졸이 6명(6.1%), 일반계대졸이 4명(4.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의과목으로 품목별전문교육이라고 답변한 98명 중에서 수도작이 26명(2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과수가 20명(20.4%), 채소가 16명(16.3%), 한우, 특작이 각각 12명(12.2%), 화훼가 6명(6.1%), 양돈이 2명(2.0%)으로 나타났다.

강의방법의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으로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66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해하기 쉬움이 86명(29.9%), 어려움이 24명(8.3%), 대단히 이해하기 쉬움이 10명(3.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96명인 33.4%가 강의방법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감안한다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1.0%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통의 응답자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의방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강의수강 자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지하게 수강했다고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56명(5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 82명(28.5%), 매우 진지함이 30명(1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간 무관심하게 수강했다고는 답변자는 18명(6.3%)이고 무관심하게 수강했다는 답변자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경영인은 필요성에 의하여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했으므로 비교적 진지하게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답변자 288명중 186명인 64.6%가 강의를 진지하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감안한다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3.1%가 진지한 수강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진지하게 수강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56명 중에서 40~49세가 96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56명(35.9%), 20~29세와 50~59세가 각각 2명(1.3%) 씩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진지하게 수강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56명 중에서 일반고졸이 5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이 38명(24.4%), 중졸이하가 36명(23.1%), 전문대졸이 12명(7.7%), 농수산계대졸이 10명(6.4%), 일반계대졸이 4명(2.6%)으로 나타났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진지하게 수강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56명 중에서 수도작이 52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가 32명(20.5%), 특작이 24명(15.4%), 한우가 20명(12.8%), 과수가 14명(9.0%), 화훼가 6명(3.8%), 양돈이 4명(2.6%)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전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기대했다고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3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매우 기대가 102명(35.4%), 보통이 40명(13.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답변자는 8명(2.8%)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수강자는 2명(0.7%)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경영인은 교육훈련에 대한 수강전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답변자 288명중 234명(81.2%)이 강의 수강전 높은 기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를 감안한다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7.9%가 진지한 수강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우 기대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02명 중에서 40~49세가 52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42명(41.2%), 20~29세와 50~59세가 각각 4명(3.9%) 등이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매우 기대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02명 중에서 일반고졸이 32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이 30명(29.4%), 중졸이하가 26명(25.5%), 일반계대졸이 6명(5.9%), 농수산계대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4명(3.9%) 등이었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매우 기대했다고 답변한 조사자 102명 중에서 수도작이 3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가 16명(15.7%), 특작이 14명(13.7%), 채소, 한우가 각각 12명(11.8%), 화훼가 6명(5.9%), 양돈이 2명(2.0%) 등이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후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52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통 102명(35.4%), 매우 만족함이 14명(4.9%), 별로 만족하지 못함이 14명(4.9%)로 나타났고, 전혀 만족 못함이 2명(0.7%)이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경영인은 교육훈련에 대한 수강후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답변자 288명중 166명인 57.7%가 강의 수강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까지 감안한다면 답변자의 대부분인 93.0%가 진지한 수강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강후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조사자 152명 중에

서 40~49세가 82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62명(40.8%), 20~29세와 50~59세가 각각 4명(2.6%)씩이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수강후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조사자 152명 중에서 일반고졸이 54명(35.5%)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농수산계졸이 44명(28.9%), 중졸이하가 36명(23.7%), 일반계대졸이, 농수산계대졸, 전문대졸이 각각 6명(3.9%)씩을 차지하였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수강후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조사자 152명 중에서 수도작이 6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특작이 22명(14.5%), 채소와 과수가 각각 20명(13.2%), 한우가 16명(10.5%), 화훼가 8명(5.3%), 양돈이 2명(1.3%)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현재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를 묻는 적용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조사자가 전체 288명중 118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약간 현실적이 102명(35.4%), 비현실적이 36명(12.5%), 매우 현실적이 28명(9.7%)이었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130명인 45.1%가 교육과정을 현재의 업무에 적용 가능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시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이 현업 담당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288명중 108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 98명(34.0%), 매우 관련이 48명(16.7%), 별로 관련없음이 28명(9.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절반이 넘는 156명인 54.2%가 교육과정이 현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좋다는 응답자가 전체 288명중 12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 106명(36.8%), 매우 우수가 42명(14.6%), 나쁨이 10명(3.5%)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절반이 넘는 168명인 58.4%가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답변한 36.8%의 응답지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개발시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는 교재개발이 중요하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좋다는 응답자 126명중에서 40~49세가 68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52명(41.3%), 50~59세가 4명(3.2%), 20~29세가 2명(1.6%)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좋다는 응답자 126명중에서 일반고졸이 46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과 중졸이하가 각각 30명(23.8%), 농수산계대졸이 8명(6.3%), 전문대졸이 각각 6명(4.8%), 일반계대졸이 4명(3.2%) 등이었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좋다는 응답자 126명중에서 수도작이 48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특작과 과수가 각각 18명(14.3%), 채소가 16명(12.7%), 한우와 화훼가 각각 8명(6.3%), 양돈이 6명(4.8%)으로 나타났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면 교육훈련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참여하겠다는 답변자가 전체 응답자 288명중 96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94명(32.6%)으로 총답변자 288명중 190명인 65.9%의 많은 농업경영인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참여하겠다는 답변자 96명중에서 40~49세가 58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4명(35.4%), 50~59세가 4명(4.2%)이었다. 그러나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94명중에서는 30~39세가 46명(48.9%)으로 40~49세의 40명(42.6%)보다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참여하겠다는 답변자 96명

중에서 일반고졸이 40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계졸이 28명(29.2%), 중졸이하가 18명(18.8%), 일반계대졸이 4명(4.2%), 전문대졸과 농수산계대졸이 각각 2명(2.1%)으로 나타났다.

주요작목별로 살펴보면 참여하겠다는 답변자 96명중에서 수도작이 44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가 16명(16.7%), 과수가 12명(12.5%), 특작이 10명(10.4%), 한우가 8명(8.3%), 양돈과 화훼가 각각 2명(2.1%)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수강시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수강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단기간 속식교육을 원하는 답변자가 전체 응답자 288명중 134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간 당일 연속교육이 84명(29.2%), 학기제와 같은 장기간 당일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60명(20.8%)이었다.

교육훈련 수강시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달을 묻는 질문에서 1월이 전체 응답자 288명중 86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월과 12월이 각각 58명(20.1%)이었으며, 11월은 42명(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12, 1, 2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동안은 교육받기를 원한다고 답변한 답변자가 최저 1명에서 최고 6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해 보통 농한기인 11~2월의 4개월 동안 교육받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244명(84.7%)로 대부분이었다.

교육훈련 수강시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요일은 월요일이 전체 응답자 288명중 70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요일이 50명(17.4%)이었고, 금요일이 46명(16.0%), 화요일이 42명(14.6%), 토요일이 32명(11.1%), 목요일이 24명(8.3%), 일요일이 12명(4.2%)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훈련 수강시 교육비 지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288명중 69.4%인 200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전체 응답자 288명중 78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가 42명(14.6%)이었다. 그 외에 교육받기를 원하는 교육으로는 정부교육, 농촌진흥청교육, 농

수산물유통공사교육, 한농연 도단위교육, 한농연 읍·면단위교육 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학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유익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288명중 108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단히 유익함이 62명(21.5%), 보통이 22명(7.6%)으로 나타나 총답변자 288명중 절반이 넘는 170명(59.0%)이 농학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교육과정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강의 등 후속교육을 수강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288명중 146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있음이 48명(16.7%), 보통이 44명(15.3%)이었으며, 없음이 18명(6.3%), 전혀 없음은 2명(0.7%)으로 매우 적게 응답했다. 따라서 총답변자 288명중 절반이 넘는 194명(67.4%)이 통신강의 등 후속교육을 수강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농정시책과 관련하여 유통망에 대한 정보나 정책 교육내용이 미약하고, 자금지원이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회성 교육이 대부분이고, 농정시책강의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는 강사초빙의 우려가 있다.

교육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내교육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기 쉽고, 수업진행이 일반적 주입식 강의가 되기 쉬우며, 교육수요자의 여건이 고려하지 않은 교육시간 편성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일반적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생의 수준차를 감안하지 못한 경향이 높다.

출강강사와 관련해서 일부 강사의 강의자세가 불량하고, 농촌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교육교재는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오래된 자료이며 교재내용이 다소 부실하였다. 기술정보면에서는 강사진의 연구자료가 미공개되고 있으며, 농업전문서

구입의 어려움이 있다.

교육장소와 관련해서는 장소 선정시 지역상의 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장소 접근의 어려움이 있고, 협소한 경우도 많았다.

교육내용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내용보다는 중앙임원만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내용이 많았고 전문적인 교육담당부서가 없으며, 실무자의 업무 과부하로 교육과정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교육예산 편성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집행을 자체도 미흡한 수준이며 예산지출형태도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집행내용은 미진한 수준이다.

평균적인 교육참석율은 57.9% 수준으로, 교육참석율은 교육시기, 교육내용, 개인사정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50% 수준은 교육과정개발자체의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 품목별 전문화 교육

실무진(직원 2명)내에서 전체교육일정 계획이 선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실무진의 전문성 결여와 인원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교육내용이 선정되고 있는데, 교육목적과 목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전문화교육의 경우 참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품목위원회조차도 완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발전방향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유통망에 대한 정보나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제시해야 하는데 저공해·무공해 과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출농업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1회성교육보다는 연차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정시책강의는 보다 책임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교육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내교육보다는 현장실습 및 견학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은 강의보다는 질의응답과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수요자를 고려한 교육시간이 편성되어야 한다.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시기는 동·하절기의 농한기가 적절하며, 교육인원이 많을 때는 산만하기 때문에 분반을 추진하되, 교육생 수준차를 감안한 반편성을 하도록 한다.

출강강사와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정신교육특강이 요망되며 좀 더 열성적인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강의내용은 녹음하여 복사, 배부하고 충분한 자료준비를 유도해야 한다. 교육교재는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작하고 부교재의 다양화 -슬라이드, 실물표본 등- 를 피하고 교재의 일부내용은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자료사용이 바람직하며, 기술정보면에서는 강사진의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연구결과를 교육생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교육장에서 농업전문서적을 판매하는 것이 좋다.

교육장의 위치는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교육장소 선정시 지역상 거리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과 숙식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가. 한농연 중앙교육 발전방향

1) 교육운영체계

전문부서 및 전문가를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 교수자, 피교육자대표, 해당 직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프로그램마케팅 등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교육목표는 반드시 기술해 교육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교육목표 서술은 반드시 도달점까지 명시해야 한다. 교육후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차기 교육프로그램 계획시 평가자료로 적

극 활용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래머의 신념과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시대적 흐름의 반영비율을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인의 자질함양보다는 경영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전문교육(경영계획 분석, 유통·마케팅 부분)이 필요하며, 생산자조직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회원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교육방법

품목별 선도농가 중에서 강의능력이 있는 강사를 발굴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 자가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의내용은 녹음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에 맞는 교육방법을 선정해야 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관계기관담당자를 섭외해 토론회에 적극 동참시키며, 토론내용은 문서화하여 공신력 있는 토론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부교재(슬라이드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해야 한다.

나. 한농연 시·군 단위교육 발전방향

1) 교육운영체계

효율적인 프로그램 생산을 위해서는 참석률이 높은 우수 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특히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프로그램마케팅 방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목표를 반드시 기술해 교육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후 사후평가를 실시해 차기 교육프로그램 계획시 평가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교육방법

교육대상자의 특성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참여식이나 게임식의 교육방식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자의

스스로 자가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의내용을 녹음해 계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재 외에 슬라이드와 같은 부교재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해야 한다.

다. 제도적인 측면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확장교육을 통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WTO 출범과 UR 협상 타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확장교육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시작 단계에 있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확장교육이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새로운 위상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농업경영인부터 확산되도록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확장교육에 대한 이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WTO 출범과 UR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전면개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국가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 농촌지도사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관·산·학 협조체제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과정에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확장교육 지원을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셋째, 현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시·군 교육훈련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교육비 일부 지원을 통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교육내용을 현장 수용에 적합하도록 내실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넷째, 중앙 정부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운영의 지침시달을 통하여 대농민 교육비로 한정된 별도계정으로 독립 운용토록 지정하여 타용도로 교육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억제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섯째, 품목별 전문적 기술교육 강화훈련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정책,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섯째, 앞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확장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경중, 1995, 농업계 고등학교 농산물 유통 및 농업정보 관련학과의 교육과정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 김수일, 1988,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사회교육 방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pp.40-72.
3. 김원희, 1983,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논집 제10권.
4. 김인식, 1984, 교육과정입안의 준거설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제인, 1989,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략, 한국평생교육기구 편, 평생교육과 여성사회 교육, 서울, 정민사, pp.217-262.
6. 김종서, 1983, 사회교육 프로그램 계획,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8권, pp.7-20.
7. 김지자, 1979, 매스·미디어의 사회교육계획, 한국사회교육협회·계명대학교 지역사회교육연구소, 1979, 매스·미디어와 사회교육, 사회교육의 계획과 실천, pp.25-30.
8. 김진화, 1990,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모델의 고찰, 한국농업교육학회,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제22권 3호, pp.85-96.

9. 김진화, 1997,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의 해석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10. 나일주, 1992, 산업교육 프로그램개발 모형 및 양식개발연구.
11. 벨러 지음, 정희숙 옮김, 1990,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광사.
12. 박순경, 1984,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체제적 접근,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논문.
13. 박순경, 1993, 교육과정 연구 패러다임의 다원성(I),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 연구 제12집.
14. 박치현, 1991, 교육과정 개발 이론과 개발 실제의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15. 박현주, 1991, 교육과정의 특성에서 본 실제성 이론의 타당성,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6. 백명희, 1983, 사회교육관리, 한국지역사회후원회 심포지움(미간행).
17. 성낙돈, 1991, 사회교육 계획론,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사회교육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pp.99-135.
18. 연세대학교 교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 편, 1992, 교육과정이론, 서울, 양서원.
19. 유미경, 1991, 교육과정이론 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비교고찰, 연세대, 교육학 석사논문.
20. 윤병희, 1988, 교육과정 이론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고찰—외국의 이론 분류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pp.229-252.
21. 이무근, 1990, 직업·기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서울, 배영사.
22. 이성호, 1982, 교육과정: 개발전략과 절차, 서울, 문음사.
23. 이성호, 1993, 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양서원.
24. 이은영, 1993, 비판적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고찰, 고려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5. 이정아, 1989,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 이현정, 1993, 학습하는 사회, 신교육모음 5, 서울, 배영사.
27. 정영주, 1983, 성인교육 프로그램 구성 모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논문.
28. 정지웅·김지자, 1995, 사회교육학 개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pp.95-132.
29. 최운실 외, 1992,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2).
30. 황희숙, 1986, 교육과정 개발의 접근 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Allan, C. Ornstein & Francis, P. Hunkins 공저, 김인식 역, 1992, 교육과정: 원리·과제·전망, 서울, 교육과학사.
32. 광병선, 1981, 교육과정의 개념 및 제접근방법, 교육연구개요지: 교육과정 편, 한국교육개발원.
33. 권권일·김인아, 1996, 사회교육의 이해: 프로그램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34. 기순신, 1995, 사회교육기관의 노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결정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35. 김경미, 1997, 농촌지도요원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인지 및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 김용선·강만철, 198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37. 김인식·정찬교·권요한, 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38. 김진화, 1996,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의 해석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9. 김창걸, 1994, 교육행정학신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40. 김창걸, 1994, 교육행정학신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pp.239-272.
41. 김현수, 1995, 사회교육자의 교육적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42. 이성호, 1983, 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양서원.
43. 이정아, 1989,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44. 이현청, 1993, 학습하는 사회, 신교육모음 5, 서울, 배영사.
45. 중앙소방학교, 1997, 교수학습론, '97전문교육과정(교관양성반).
46. 최민호, 199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전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47. 한국교육개발원, 1994,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개선 방안, 연구보고 RR 94-9.
48.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1992, 사회교육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4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지도자 교재 총서.